

다우코닝, 조달호 신임대표 선임

전영욱 대표 후임으로 ... 아시아 사업개발 총괄 담당까지 겸직



한국다우코닝(Dow-Corning)이 조달호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한국다우코닝은 11월10일 전영욱 대표 후임으로 조달호 미국 실리콘고무 사업부 이사를 임명했으며, 조달호 신임대표는 한국다우코닝 대표이사직과 아시아 사업부 사업개발 총괄 담당직을 겸임하게 된다.

조달호 신임대표는 1987년 입사해 연구, 생산, 영업 부문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화학공학 학·석사 및 경영학 석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달호 신임대표는 “한국 산업발전에 조력해 온 다우코닝의 한국 지사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다우코닝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상용화하고 시장을 주도해온 6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Dow Corning은 2005년 3/4분기 세계 매출이 9억5000만달러, 순이익은 1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4%, 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11/11>